



차별없이 그려낸 세상, 봄처럼 피어나길

장애·비장애예술인 함께하는 '봄 피어나다 제주 기부전' 4월 한 달간 '자폐인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 숲' 전시도

제주에서 전국의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전시가 잇따른다.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어우러짐을 목표로 전시를 기획하는 다리야컴퍼니는 오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사)문화예술공간문뜰갤러리에서 '봄, 피어나다. 제주 기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 전시는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 전시와 공연을 개최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 및 자폐증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번 전시엔 발달장애인 작가와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 작가, 현역에서 활동 중인 비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며, 장애·비장애 공연 예술인들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오프닝 기부 공연은 4월 2일 오후 3



김태환 출품작



'자폐인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 숲' 전시작

시 진행되며, 행사 기부금은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4월 한 달간 제주에서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가 주최하는 '자폐인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 숲' 전시도 열린다.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오티스타가 제주에서 여는 첫 전시다.

오티스타의 13명의 자폐인 디자이너들은 첫 출장으로 직접 제주를

여행하며 그린 제주의 풍경과 사계를 담은 28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오티스타를 설립한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는 "자폐인 디자이너들이 제주의 바닷길, 숲길을 따라 본 아름다운 풍경을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냈다"며 "오롯이 보이는 대로 그려서 더욱 특별한 오티스타의 그림을 통해 관객들이

제주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4월 1일부터 서귀포 UDA 갤러리(카페유디에이)에서 시작되는 전시는 15일까지 시민과 만나고 제주시로 이동해 18일부터 30일까지 원도심에 위치한 창작공간 낭섬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무료 관람이며, 모든 방문객에게 전시그림으로 제작된 포스터엽서를 증정한다. 오로지까지

산지천갤러리 상설전시관 '김수남관' 문 연다

2층에 조성... 4월 1일 오픈 아카이브, 사진 등 테마전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산지천갤러리에 故(고) 김수남 작가의 기증품을 상설 전시하는 '김수남관'이 문을 연다.

산지천갤러리는 "소장품 연구를 통해 유품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진사와 문화사에 기여한 작가의 활동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김수남관'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일은 4월 1일이다.

김수남 작가는 1980년대부터 한국의 굿시리즈와 동아시아 민속 시리즈를 사진으로 기록해 온 제주출



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한국과 아시아 민속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산지천갤러리는 지난 2017년 1월 고 김수남 작가의 유족이 제주도에 기증한 작가의 작품과 유품들을 소

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증받은 소장품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김수남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보여 왔다. 지난해엔 산지천갤러리 개관 5주년 기념 소장품전 '물입'을 통해 소장품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일부 선보인 바 있다.

산지천 갤러리 2층 서관을 활용해 조성된 '김수남관'은 아카이브, 사진, 서적을 테마로 채워진다.

산지천갤러리는 유품 및 작품을 분기마다 교체하며 변화를 줄 계획이다.

현재 갤러리 소장품은 액자 사진 작품 및 카메라와 메모수첩 등의 유품과 원판 디지털파일 17만점(외장하드) 등이다.

'김수남관'은 산지천갤러리 휴관일을 제외하고 관람(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마감시간 오후 5시)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오로지까지 ejoh@ihalla.com



제주연극인들 열정의 무대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진출할 제주대표팀을 뽑는 제주예선을 겸한 제26회 제주연극제의 두 번째 공연 예술공간 오이의 '산은 밤이면 범고래가 된다' (홍서해 작·연출)가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사진은 리허설 장면, 예술공간 오이 제공) 연극제는 31일 오후 7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극단 기림의 '올어라! 바다야' (이상용 작·연출)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4월의 토요일 물들일 클래식 향연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4월의 토요일이 다채로운 클래식의 향연으로 물든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리즈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이 진행된다.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은 '국내 최초, 최고의 퍼포먼스 브라스 밴드'라는 수식어를 가진 퍼니밴드(사진)의 '싱싱싱(sing sing sing) by 퍼니밴드'가 연다.

이날 퍼니밴드는 재즈, 가요,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연례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트로 구성된 무대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퍼포먼스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



이다. 무료 공연이며, 입장권은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해 4월 4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이어 4월 15일에는 음악 해설사 조운범과 파르티엑스가 '음악사 하이라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4월 22일 소아베 트리오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오로지까지

제주도 주정공장을 아시나요?

4월 11일 제주학 연구자 특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한다. 올해 처음 마련한 제주학 연구자 초청 특강을 통해서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로 2022년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연구비 공모지원 사업'의 과제로 선정돼 수행된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조성원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나

선다. 조 명예교수는 그동안 직접 일본을 오가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성과를 알리고, 제주 근대사 연구를 위해 절실했던 귀중한 자료 축적의 결실을 함께 나눈다. 센터는 이번 강연을 통해 제주 주정공장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강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도민 누구나 참여(30명 내외)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오로지까지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시산림조합장



김근선

제주시산림조합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조카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장



고영찬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장(제16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고산농협 농촌사랑푸레향봉사단
회장 고순여 외 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16대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제주시농협조합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중부지점 영농협의회
삼도1동 영농회 회장 윤보현
삼도2동 영농회 회장 원인철
이도1동 영농회 회장 윤순복 외 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3대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경위 양운석

제3대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씨 외산종친회 종친일동